

신도시 생활 속 불편 해결해 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23일 양주시 회천 신도시 주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신도시 조성 초기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양주시 회천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3층 상담장에서 신도시 주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도시 분야 전문 조사관과 양주시 감사관실 민원 조사관이 합동으로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 회천 신도시는 412만㎡ 면적에 인구 6만 3천여 명, 25,000여 세대 규모로, 올해 10월까지 5,14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내년 6월까지 총 5,34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접수한 민원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건의사항 등은 소관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작년 7월 8,400여 세대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올해 6월 9,700여 세대 규모의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대중교통과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며,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주무관	김석호	(044-200-7491)

